

#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 김양원 전주부시장, 도토리골 절개지 등 재해위험지구 방문

전주시가 지난 14일 재해위험지역과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했다.

이날 김양원 전주부시장을 비롯한 합동점검반은 암반파괴 및 탈락 등의 위험성이 있는 재해위험지구(도토리골 절개지)를 방문해 관계자로부

터 사업진행사항에 대해 들었다.

또한, 해빙기를 맞아 공사현장(전주 초지구 우수저류시설공사)을 방문해 그간 공사현황을 보고 받고 안전관리 실태와 유지관리를 직접 확인했다.

김양원 전주부시장은 "최근 발생되는 여러 재난들로 인해 시민들의 불

안감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의 내실 있는 실시를 통해 재난 없는 안전한 전주 만들기를 꼭 실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4월 19일까지 재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합동점검 대상 시설물, 건축물과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시달문을 대상으로 안전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와 전주시회경제네트워크는 지난 15일 평화2공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도·시의원, 주민대표, 가맹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형 공동체 화폐 시범사업 '꽃전' 발행 기념식'을 가졌다.

## 전주형 공동체화폐 '꽃전' 첫 유통

### 전주시, 발행 기념식 가져... 6월까지 평화2동 일부 시범사업 확산종합사회복지관서 5% 선 할인 구매... 가맹점서 사용 가능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전주형 공동체화폐인 '꽃전'이 유통된다.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센터장 조선희)와 전주시회경제네트워크(대표 고은하)는 지난 15일 평화2공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도·시의원, 주민대표, 가맹점 대표, 전주시회경제네트워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형 공동체 화폐 시범사업 '꽃전' 발행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주형 공동체 화폐 시범사업은 전주시회경제네트워크와 지역주민이 구

성한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18일부터 오는 6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평화2동 일부지역에서 실시된다.

전주시 사회경제네트워크가 시민 공모를 통해 제작한 '꽃전' 화폐는 1,000꽃전과 5,000꽃전, 1만꽃전(1꽃전=1원) 3종류로 발행됐으며 각각 전주의 과거(남부시장)와 현재(합죽신), 미래(첫마중길)를 상징적으로 담아 전주다움을 표현했다.

꽃전 사용자는 거래소인 확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5%를 선 할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 꽃전은 지역 내 가맹

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80% 이상 사용 시 꽃전 혹은 현금으로 잔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원활한 유통을 위해 잔금을 돌려받기 보다는 꽃전으로 지불하고 모자란 돈을 현금 또는 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꽃전을 사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 가맹점은 평화2동 지역에 소재한 가게들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춰 유흥업소와 대자본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 일부 프랜차이즈 업종은 가맹점 대상에서 제외됐다. /송효철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문화가 있는 날 공모 선정

### 중산·책마루어린이 등 전주 5개 작은도서관 영화읽기·동화작가 특강 등 매월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의 5개 작은도서관, 중산·책마루어린이·우아문화의집·초록우산·웅담샘작은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19년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완산도서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국 488개 작은도서관 중 100곳을 선정해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에 작은도서관에서 문화예술가와 작가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질 높은 독서문화 활동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선정에 따라 이들 5개 작은도서관은 올 연말까지 각 6회에 걸쳐 각계각종 전문 독서문화 활동 강사를 초청, 강의한다.

세부적으로는, △영화감상과 영화원리를 통한 영화읽기 △책 속 주인공 인형 만들기 그림자극 △옛이야기와 전래놀이 △동화작가 특강 △책 수선해보기 프로그램 등이 각각 진행 될 예정이다.

박용자 완산도서관장은 "이 사업으로 작은도서관을 좋아하게 되고 나아가 지역 문화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 전주시, 조기진통 등 기존 5대 질환에서 11대 질환으로 늘려 지원한도 1인당 최대 300만원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임신유지에 진료비 부담이 큰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질환을 기존 5대 질환에서 11대 질환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대상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기존 5대 질환에 △전치태반 △절박유산 △산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부력증 등 6대 질환이 추가됐다.

지원 대상도 확대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다.

지원한도는 1인당 최대 300만원으로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범위(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가 등록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올해 18억 6000만원을 투입, 기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하고 모든 출생아 가정에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지원하고 있다.

시는 또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과 올해 전주지역 출생아 1,000명에게 금융비우체 2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산장려정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 전북은행에서 아동명의 통장을 개설해 아동수당을 수령할 경우 금융비우체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육아용품구입비 25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마지막 자녀가 만8세 이하인 가정에게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발급하고, △전주동물원·전주자연생태박물관·경기전 무료입장 △전주시 공영주차장·부설주차장·전주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최근 결혼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고위험 임산부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적절한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대상자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및 모자건강사업 등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063-281-6281~2, 6285~7)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전주시는 지난 15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군부대·경찰·소방서·교육계·병무청·교도소 등 통합방위 관련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1분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김승수 시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위원들은 최근 변화되는 안보상황과 비확화력을 통한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 남북 간 경제협력 실현을 위한 분위기에 맞춰 유관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남북교류사업과 지역경제도약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 등에 더욱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만큼 통합방위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예산지 못한 각종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합방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지극히 상호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차량서 낚시 가방 훔친 40대 검거

주차중인 차량에서 낚시 가방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41)씨를 검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 25분경 완주군 봉동읍 한 하천에 주차중이던 차량에서 낚시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 B모(58)씨가 차량 트렁크를 열어놓은 채 낚시 장소를 물색하는 틈을 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와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 농수산물 훔친 60대 달미

재래시장 가판대에 진열중인 농수산물 훔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69)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0시 40분경 전주 완산구 한 시장에서 농수산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와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순간 욕심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범죄신고 112·화재신고 119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